



지화교육 강좌

교육내용

초급1년, 중급1년, 고급1년 연구반 (수료증발급)

강의요일 및 시간

2019년 10월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시

강의장소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파빌리온 543호

수 강 료

20만원 (회원은 20% 삭감) (재료비별도)

문 의

010- 5390-0108

포토 : 주병수
한지공예 협찬 : 김경옥

정명스님 개인전 한국전통지화 회원전

(조선시대 궁중지화 재현전)

(불교생활지화와 현대생활지화)

불기 2563년(2019년) 9월 24일(화) ~ 28일(토)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나무갤러리)



주최 : (사)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주관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목 차

4	축사 홍윤식 박사
5	축사 김태연 명예교수
6	인사말 정명스님
7	조선시대 궁중지화 정명스님 개인전
9	불교생활지화 심갑식(정명스님) • 이순희 (정민스님) • 남순임(명안스님) • 고영신 • 김귀남 노경순 • 이정자 • 김장순 • 전양희 • 안혜영 • 고정애 • 정의순 • 김선조 김연진 • 박계영 • 김호례 (보광여래) • 김윤실 • 박영숙 • 한상열 • 이선화 지영애 • 차명옥 • 송광선 • 김경옥 • 정혜월 • 정철임 • 황영애 • 선일스님
25	민간현대생활지화 유운지 • 최숙자 • 이성진 • 원명수 • 송선화 • 황병희 • 김승섭 • 석미영 김태숙 • 하남경 • 이옥희 • 오경양 • 김현오 • 박현옥 • 이나영 • 박영신 권은임 • 변혜경 • 이금주 • 김분자

축사



홍 윤 식

사단법인 한국 전통지화 보존회가 법인체를 구성하고 그 기념으로 지화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니 그 의미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어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화란 종이로 만든 아름다운 꽃을 말하지만 이는 생화가 아니기에 각종 색상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엄하여 그 장엄미가 돋보인다는 데서 불교의식이나 궁중의식 등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

불교경전 등에 의하면 불법의 환희가 총만 할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주의 만상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러기에 그를 충족시키는 의례행위가 있으면 자연 꽃은 만발한다는 것이다.

지화가 주로 불교의식이나 궁중의례에서 성황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화가 갖는 장엄미가 돋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이상과 같은 지화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의미에 깊은 감동을 느낀 회원들이 뜻을 모아 40여명이 작품을 출품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본 법인체의 이사장이신 정명스님의 정성이 가득한 행사라는 데서 감히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존회의 발전과 정명스님 이하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2019년 9월12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홍 윤 식

축사



김 태 연

‘전통(궁중)지화의 재현’을 반기면서.....

삼보 귀의 하옵고~

정명스님의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의 창립 및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불교지화장엄전승회의 여러 차례 전시회를 지켜보면서, 끊임없는 전통지화의 보존과 창작에 온갖 열의를 다하고 계신 정명스님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알록달록한 오색종이로 만든 꽃들이 마냥 예뻐서 전국을 뒤흔들며 찾아 헤메어 온지도 40여년, 현대 산업사회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연구자로서의 조바심으로 우려했던 때에 만난 정명스님은 제게 다시 희망을 일깨워준 좋은 인연입니다. 특히 ‘불교지화장엄전승회’의 발족은, 사라져가는 지화의 기법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고자 했던 초조한 저의 마음에 위안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지화가 학문으로써나 대중의 관심밖에 있어 그 중요성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장인들의 수고에 비하여 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화가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 인간의 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불교의례에 장엄으로서 그 기능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로 승화되는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명스님의 ‘궁중지화 재현전’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궁중의례에 사용되었던 지화를 제작 전시하므로써, 조선시대에 꽃이 상징하는 국태민안과 왕실의 강건과 다산을 기원하고, 백성들의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진찬연등의 궁중의례에 화려하게 장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궁중지화의 쓰임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정신문화가 깃들여진 궁중장식의 품위있는 미감이 반영된 격조 높은 표현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후대에 전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더욱 주목을 끌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2019년 9월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김 태 연



정명스님

맑고 향기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정명스님 개인전'과 '한국전통지화 회원전'을 열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전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무원 문화부장 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행사가 개최되기 까지 도와주신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운영위원님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불교에서 꽃은 깨달음의 상징으로, 불교의 꽃 기원은 부처님의 전생부터 꽃을 공양하는 것이 시원이 되어 거의 모든 경전에 꽃이 등장하고 부처님 가시는 곳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부처님 계신 곳은 꽃으로 장엄합니다. 화엄경 법화경처럼 경전의 이름에 꽃이 거론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불교는 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전통 지화문화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불교지화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불교지화장엄전승회를 창립 하였고 회장으로서 해마다 전시회, 세미나, 교육 그 외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육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과 함께 꽃 일을 첫 번째 순위로 생각하여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만들면서 불도량에 꽃을 장엄하고 공양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 일이 곧 우리들의 행복이었고 만인의 원력이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꽃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불교의 꽃을 시대별로 연구한 결과,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꽃 일은 최고의 극치를 이루었고 조선시대 와서 조선왕조실록에 채화를 지화로 대체하라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불교, 궁중, 무속, 민가에까지 지화문화가 이어오다가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화가 사철 나오면서 종이로 꽃을 만드는 꽃일 문화가 점차 사라진 것입니다.

불교지화를 하면서 한국전통지화로 인식과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에 책임을 느끼면서 올해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에 뜻을 모아 창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지화를 재현하였고 회원은 불교생활지화, 현대 생활 지화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잊혀져가는 한국전통지화를 복원하고 보존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꽃 문화를 창조 하면서 조선시대 지화가 다시 세상에 꽃 피워질 수 있게 앞으로도 지화를 만드는 회원 모두 불심과 화심으로 화합하고 아름다운 화장장엄세계를 만들어 한국전통지화보존회를 잘 키워 가는데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4일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대표 정명

조선시대 궁중지화



정 명 스 님 개 인 전 (조선시대 궁중지화)



사권화



어잠사권화



1층 수파련



지당판



2층 수파련

정 명 스 님 개 인 전 (조선시대 궁중지화)



3층 수파련

불교지화



그림 1. 마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19페이지 김효례작품 관련)

불교에 꽃에 시원 연등불에게 최초로 간다라에서 꽃을 바치는 모습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록된 여러 전승에 의하면 이름이 메가(Megha) 또는 연산스 크리티어로 씌어진 보디사트바다나 칼파라타(Bodhisattvadana- Kalpalata)에 의하면 수마티는 수행자 브라만이었다. 어느 날 이곳에 연등불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분께 바치려고 꽃을 사려 했지만 그 나라 왕이 연등불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꽃을 사들이라고 한 까닭에 꽃을 구할 수가 없었다. 수마티는 꽃을 구하러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중에 왕의 딸 인 순다리(Sundari)가 일곱 송이의 연꽃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한다. 이에 나에게 팔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녀는 수마티에게 반한 터라 주기를 원하지만 주되 조건이 있다며 다음 생에 자신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 한다. 바로 이 소녀가 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이 된 야소다라 공주이다. 수마티는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 다섯 송이는 자신에게 주고 두 송이는 직접 연등불께 바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난 후 연등불께 꽃을 바치자 꽃은 공중으로

떠서 연등불 머리위에서 천개를 이루었다 그러자 수마티는 연등불이 흉탕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자 몸을 숙여 자신의 머리를 깔아 발에 흠을 묻히지 않고 지나가시게 한다. 이 때 연등불이 '너는 다음 생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수기를 준다(ibid 13)(그림.1) 이러한 장면은 간다라 조각에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부처님께 경의로운 마음으로 꽃을 바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불에게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법현스님이 기원후 403년에 아프가니스탄의(당시는 탐파국(Lampaka)이라 부름) 나가라하라(Nagarahara) 절에 갔을 때 바로 이곳이 수마티가 꽃을 사서 연등불에게 바친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이곳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Jalalabad) 지역이다 기원 후 7 세기에 이곳을 찾은 현장스님은 연등불에게 머리카락을 깔아 준 자리에 아소카왕이 큰 스투파를 세웠는데 모든 유적들은 다 무너져 황폐해졌는데 이 유적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다 때로는 하늘로부터 갓가지 꽃이 비로 뿌려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공양을 드린다고 적고 있다(대당 서역기, 권덕주 옮김 1983, 우리출판사, 65쪽)

화혼의식에 칠경화

석가모니 전생에 연등불에게 칠경화를 올리고 다음 생에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신랑은 다섯 송이 신부는 두 송이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부부가 되는 화혼의식에 칠경화 유래가 있다.(20페이지 김윤실 작품 관련)

천인들이 꽃 화환을 바치고 있는 장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 설법을 하실 때 천인들이 꽃 화환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천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신과 천인 보살 중생들에서부터 동물 생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이 간다라 조각에 선명히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두 천인이 부처님께 그리스, 로마 양식의 둥그런 화관을 들고 부처님 머리위로 환희에 찬 경의를 표하며 바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그림.2)



그림 2. 파키스탄 라호르 국립박물관 소장
(14페이지 고영신작품 관련)

대표이사

심갑식(정명스님)

살화(優曇婆華)



부여지부장

이 순 희(정민스님)

남 순 임(명안스님)

월영화 (달 비추듯)



불교지화

이사

고 영 신

부처님께 천신의 화환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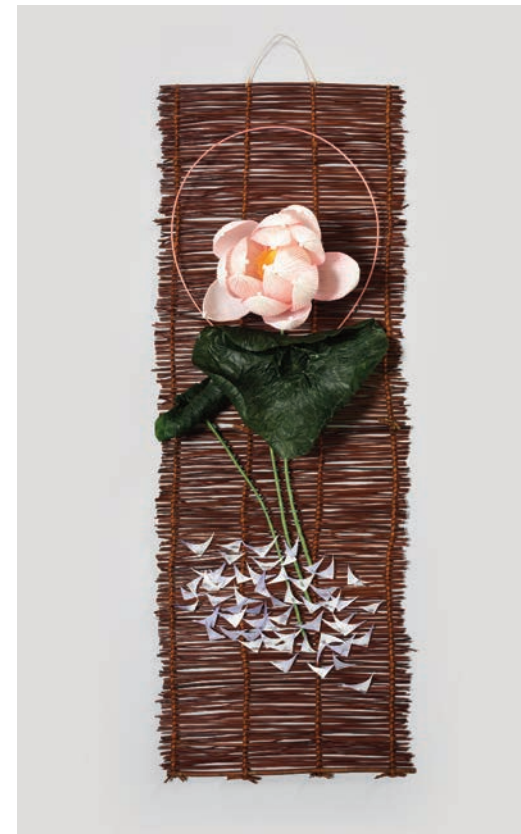


불교지화

명예부이사

노 경 순

수월관음



불교지화

명예이사

김 귀 남

법륜



불교지화

명예부이사

이 정 자

연화 기도상



불교지화

이사

김 장 순

전 양 희

부채난등



불교지화

운영위원

고 정 애

운화(雲花)



불교지화

이사

안 혜 영

극락조(환생)



불교지화

정 의 순

수파연(水波蓮)



불교지화

운영위원

김 선 조

백련(白蓮)



불교지화

사무국장

박 계 영

지화만다라



불교지화

운영위원

김 연 진

상단공화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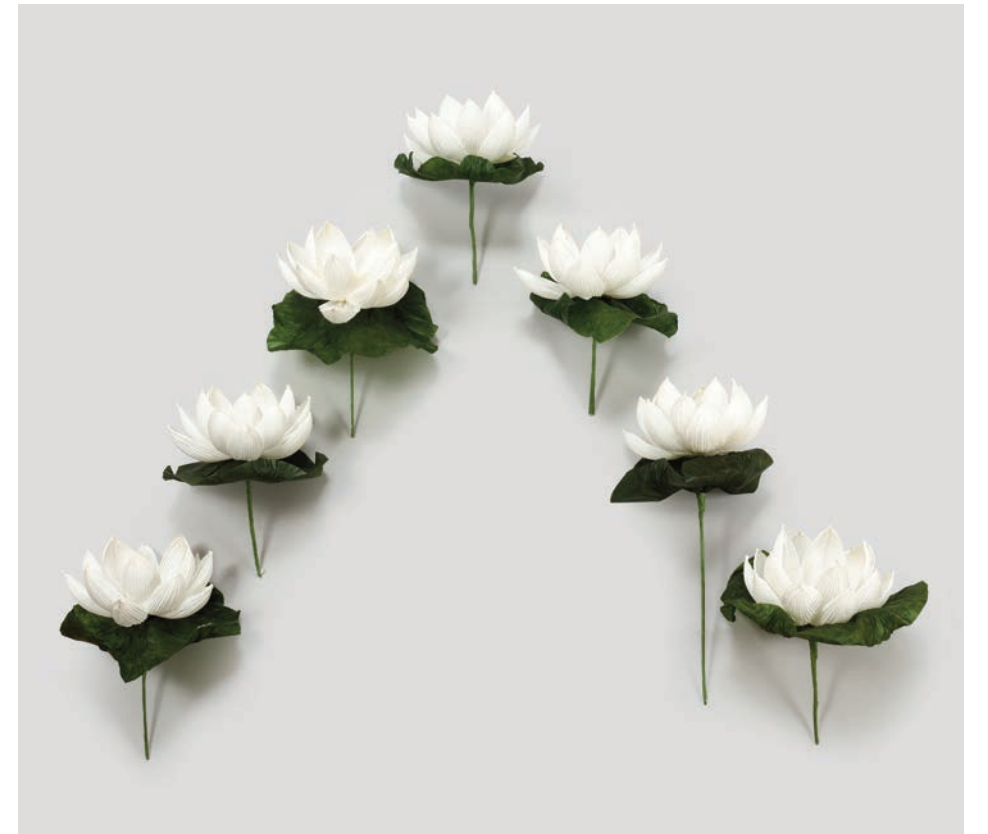


불교지화

이사

김 호 례 (보광여래)

석가모니 전생 선혜비구와
구리선녀가 보광불에게
꽃공양



불교지화

김 윤 실

화혼의식 신랑,신부 칠경화
꽃공양 (부부의 인연)



불교지화

운영위원

한 상 열

새벽기도(관세음보살 가피)



불교지화

운영위원

박 영 숙

곱슬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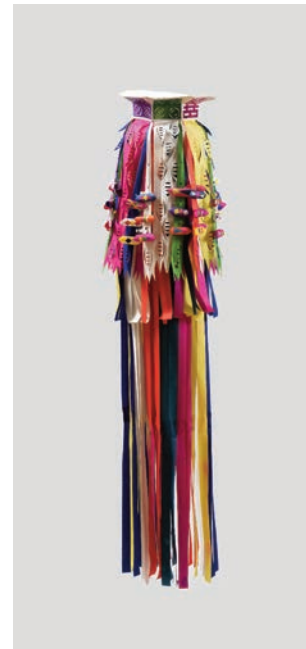


불교지화

운영위원 · 재무

이 선 화

미니 보상계, 금은전



불교지화

지 영 애

연화 스탠드(반야등)



불교지화

운영위원

차 명 옥

꽃목걸이 (환영)



불교지화

지 영 애

주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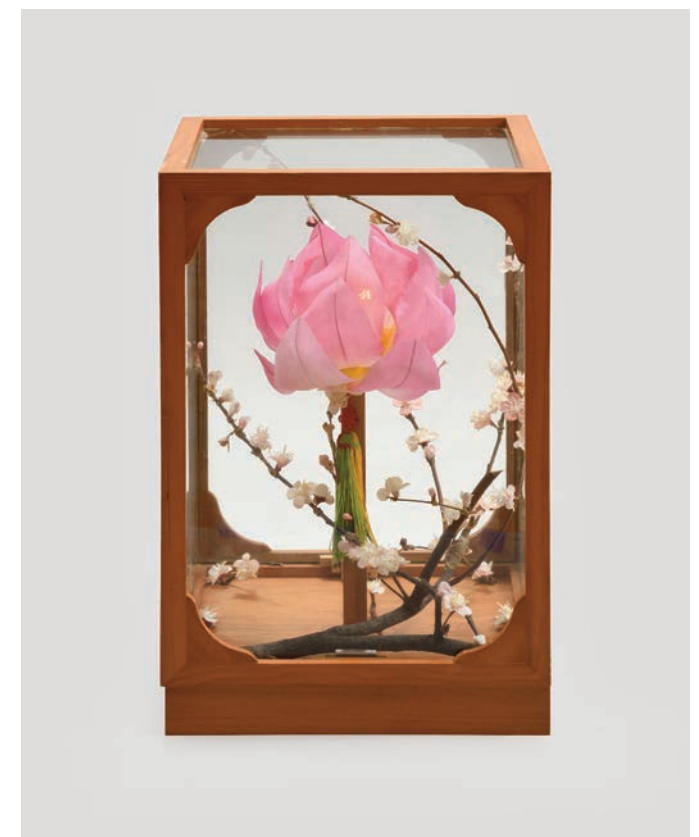


불교지화

운영위원

송 광 선

스탠드 (부처님 자비광명)



불교지화

운영위원

김 경 옥

대중화합



불교지화

운영위원

정 칠 임

황 영 애

팬이난등



불교지화

정 혜 월

도반



불교지화

선 일 스 님

상단공화(불심)

현대지화

유운지

선물용 액자



현대지화

이성진

자작나무 가랜드 (환생)



현대지화

최숙자

식탁세팅 (장미)



현대지화

원명수

파리리스(수줍음)



현대지화

송 선 화

디퓨저(누리 가득히)



현대지화

김 승 섭

꽃다발 (축하합니다.)



현대지화

황 병 희

그대를 사랑합니다.



현대지화

석 미 영

졸업식 꽃다발



현대지화

김 태 속

안방 (따뜻한 가족사랑)



현대지화

이 옥 희

선물 꽃포장(행복)



현대지화

하 남 경

케익꽃장식(결혼기념)



현대지화

운영위원

오 경 양

회갑잔치상(수연)



이사

김 현 오

신부 부케와 머리장식,
신랑 부토니아



이 나 영

꽃밭(새벽чал라)



박 현 옥

다화(찾자리)



박 영 신

밀짚모자 (나들이)



현대지화

운영위원

권 은 임

꽃바구니



현대지화

운영위원

이 금 주

응접실 꽃장식(편모란)



현대지화

운영위원

변 해 경

차상장식



현대지화

고문

김 분 자

홍도화

